

공채시즌 끝났지만 취업문은 ‘활짝’ 현대차·LG·신세계 상시채용 ‘주목’

상반기 공채 시즌이 마무리됐지만, 최근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대규모 정기공채 대신 상시공채나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10대 그룹 채용에서 그룹 공채는 절반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상시·수시 채용 소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커졌다.

24일 사람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LG그룹, 신세계그룹, 한화케미칼, 두산그룹, NHN 등이 상시·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초 10대 그룹 최초로 ‘정기공채’를 폐지했다. 기존 정기 공채 방식으로는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중 상시 공채로 전환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R&D, 플랜트기술, S/W, 전략지원 등의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 수시/상시채용을 진행한다.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직무별로 채용 프로세스 및 채용일정에 차이가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류접수는 현대자동차 채용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인재풀(Pool)에 정보를 등록하면 채용 진행 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LG그룹은 LG생활건강, LG화학, LG상사, 에스앤아이 등 각 계열사에서 상시/수시채용을 진행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모집부문은 마감일이 6월인 수시채용 기업부터 인재풀 등록 방식으로 2026년까지 받고 있는 기업까지 계열사별로 채용프로세스 및 채용일정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꼭 확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외국계 기업 잡페어’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정기공채 없애고 상시 선발 두산그룹, 계열사별 수시 채용 진행 NHN, 상시인재등록시스템서 모집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LG그룹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면 된다.

신세계 그룹은 연 1회 공채를 진행하고, 그 외 상당 부분은 상시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현재 SSG.COM, 신세계푸드,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9개 계열사에서 상시모집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신세계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력 풀 등록, 채용수요 발생 시 인력풀 내 지원서 검토, 서류전형, 실무 면접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다만, 계열사별로 모집 부서와 신입, 경력 채용 여부, 채용프로세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화케미칼도 상시채용을 하고 있다. 사업개발/기획, 생산관리 엔지니어, 환경안전 엔지니어 부문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관련 전공자, 관련 경력3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우대사항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어학 능통자 등이며,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한화그룹 채용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두산그룹도 상시/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 디지털노베이션을 비롯한 각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DCAT/실무면접, 경영진면접, 회장단면접,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하며, 계열사별로 일부 전형에 차이가 있다. 서류접수는 두산 채용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NHN은 상시인재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시스템/플랫폼 개발자, JAVA웹서비스/플랫폼 개발자, 웹보드 게임 전부문, 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의 분야에서 채용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연·고대 등 사립대 16곳, 개교 이래 첫 감사

교육부, 내달부터 대대적 감사
검·경과 공조... 2년 동안 진행

교육부가 7월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나선다. 성비위 의혹을 받는 성신여대 교수 관련 사안 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16개 대규모 사립대다. 이들 대학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 111개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수 6000명(2018년 4월 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학교다. 종합감사는 오는 7월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 회계와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 교육비리나 공익제보를 위해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 부처 처음으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이번 대규모 종합감사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시선이 따라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해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뒀다.

전문대학의 경우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하되, 입시나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할 계획이다.

또 사학감사인력 증원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지난해 3개교에서 올해 5개교, 내년엔 10개교로 점차 확대하고, 국민신고센터 등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불수능 예고?... “영어 빼고 다 어려웠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144점, 객관적 난이도 높아
수학 만점자, 가형 줄고 나형 늘어
영어 2017학년도 상대평가 수준

지난 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채점한 결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수학과 탐구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전년 수능보다 쉬웠지만, 역대급 불수능과 비교하면 쉽지 않았다. 절대평가 영어 만점자는 전년보다 늘었으나, 상대평가 때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됐다.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은 144점, 수학기형 140점, 수학나형 145점으로 집계됐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보다 6점 낮았으나 수학기형은 7점, 수학나형은 6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지므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반대로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도 내려간다.

국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극히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 올해 모의평가는 쉬웠으나, 객관적인 난이도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2년 전인 2018학년도 수능(134점)보다 10점 높고,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2017학년도 수능(139점)보다도 5점 높다. 현행 수능 도입사상 전년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어려운 모의고사였다.

국어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는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1등급을 맞은 학생은 4.16%로 작년 수능(4.68%)보다 적었다. 만점자 역시 지난해 수능(0.03%)보다 낮은 0.01%에 불과했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기형의 경우 1등급 커트라인(130점)이 작년 수능보다 4점 높았다. 1등급 학생 비율도 4.24%로 작년(6.33%)보다 적었다.

수학나형의 경우도 1등급 커트라인(136점)이 작년 수능보다 6점 높았다. 1등급 비율도 4.22%로 작년(5.98%)보다 적었다. 수학 영역 만점자는 가형 0.28%, 나형 0.69%로 작년 수능 때 0.39%, 0.24%와 비교해 가형은 줄고 나

형은 증가했다. 수학기형과 나형 점수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권 학생은 늘었지만, 하위권 학생도 더 많이 늘어나 학생간 학력편차가 커지는 등 하락저하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경우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비율이 7.76%(3만6136명)로 작년 수능(5.3%)보다 늘어 상대적으로 쉬웠으나, 상대평가로 시행된 2017학년도 당시 90점 이상 추정 비율이 7.8%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평가때만큼 어려웠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가능하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불수능을 대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학과 국어는 전년 6월 평가원 모의평가처럼 어려웠고, 수학은 전년도 수능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국어와 수학의 경우 9월 모의고사 때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국영수 모두 변별력있게 출제된다는 예상을 하고 학습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학교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이 (사)한국극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희곡아 문학이랑 놀자’ 단막극전(낭독공연)에 참여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 ‘제2회 희곡아 문학이랑 놀자’ 참여

세종대학교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이 (사)한국극작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희곡아 문학이랑 놀자’ 단막극전(낭독공연)에 참여했다.

지난 15일~16일 이틀간에 걸쳐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이강백 외 6인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이 중 오태영 작, 백순원 연출의 ‘밥’ 공연에 세종대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 조정민 교수와 장웅진 학생이 엄마와 아들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대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은 우수 교수진과 커리큘럼으로 연기교육과 연기예술가 양성에 열을 다하고 있다”며 “매년 꾸준히 전국 단위의 대학연극제에 참가해 개인상과 단체상 등을 수상하고 있고, 국내외 연기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연기 훈련법과 연기 워크숍을 직접 진행해 전공 학생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연기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세종학당재단

현지 교원역량 강화·학위 취득 ‘맞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9일 세종학당재단과 ‘세종학당 교원 학위 취득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희사이버대를 포함해 8개 대학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이에 따라 세종학당 현지 채용 교원의 지속적인 교육 역량 강화와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지원, 교

육·연구 기회 확대,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인적·물적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학당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세종학당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과 임직원들은 경희사이버대에 등록,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